

Elaine

등장인물

일레인 _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6살의 여자아이로 유치원을 다닌다. 헬레나의 금발 머리를 닮았고, 클레어의 큰 갈색 눈을 닮았다. 호기심이 많아 말썽을 많이 피운다. ABC는 읽을 수 있지만 아직 단어는 읽을 줄 모른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가장 좋아한다.

클레어 _ 일레인의 어머니이다.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이다. 부인인 헬레나와는 3년간 연애했다가 결혼했다. 집에서 추리 소설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일레인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헬레나 _ 일레인의 어머니이다. 금발의 푸른 눈이다. 증권 회사에서 9년간 일했으나 얼마 전 금융 위기로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직장을 잃었다. 해고 된 이후로 직장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요즘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레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Gregory _ 일레인의 옆집에 사는 친구이다. 5살의 남자아이로 일레인과 유치원 짝꿍이다. 일레인과 같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사고뭉치이다.

시놉시스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 일레인은 매 해 생일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원으로 빈다. 올해 크리스마스도 기대를 잔뜩 안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양말을 확인했는데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선물을 찾기 위해 일레인은 모험을 떠나는데...

대본

S# 1 일레인의 집 거실, INT

거실 창문으로 함박눈이 남실거리며 내려 쌓이는 것이 보인다. 텔레비전의 웅얼거리는 소리와 사각사각 종이가 잘리는 들린다. 텔레비전에는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영상을 켜져 있다. 일레인은 거실 러그에 엎드려서 종이를 오리고 있다. 일레인의 뒤편으로 클레어가 문에 기대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화하는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클레어 “... 응, 응 맞아....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 몇 달 동안 힘들 뻔했어... 응... 응... 그렇지.. 응... 케이크는 내가 만들지 뭐...”

일레인은 어느새 종이로 만든 무언가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간다. 클레어는 익숙하다는 듯이 일레인을 눈

으로 쫓다가 다시 창 밖을 보고 전화에 열중한다.

S# 2 일레인의 집 부엌, INT

일레인이 거실에서 부엌으로 달려들어온다. 손에는 종이를 돌돌 말아 만든 검을 쥐고 있다. 싱크대 한 구석의 문을 여는 일레인의 뒷모습. 싱크대에는 여러 냄비가 들어있다. 검을 내려놓고 냄비를 옆으로 힘겹게 미는 일레인의 자그마한 손이 보인다. 일레인은 싱크대를 동굴에 기어들어가는 마냥 비집고 들어간다. 팔을 뻗어 내려놓은 검을 잡고 싱크대 문을 닫는다.

Point of View

원통형으로 쭉 이어져 있는 싱크대의 안 쪽, 어두컴컴하지만 문짝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앞으로 흔들리며 전진한다. 손에 들고 있던 검으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레인.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자 다시 전진한다. 어느정도 움직였을까 좌측에 있던 무언가와 어깨를 부딪힌다. 일레인은 핫김에 손으로 밀어버렸고, 쿵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싱크대 문이 열리며 바닥으로 냄비가 나동그라진다. 소란이 생기자마자 클레어가 일레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클레어 “일레인!”

일레인이 싱크대 밖을 쳐다보자 다가와서 멈춰서는 클레어의 다리가 보인다.

Point of View off.

클레어가 싱크대 옆에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열린 싱크대 하부장의 문 사이로 일레인이 개구지게 웃는 얼굴이 보인다.

클레어 “놀 만큼 놀았으면, 어지른 거 정리하자.”

S# 3 일레인의 거실 (생일파티 장식), INT

아이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일레인이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거실 벽면에는 종이로 “HAPPY 6th BIRTHDAY”라고 만들어진 가랜드가 붙어있다. 헬레나는 일레인이 좋아하는 앨리스로 분장하고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 클레어가 헬레나에게 다가간다. 헬레나, 다가오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한탄한다.

헬레나 “내가 이런 꼴이라니... 할로윈에도 이런 짓은 안 한다구.”

클레어 “조금만 참아. 일레인이 케이크만 먹고 나면 해방시켜줄게.”

아이들이 “까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헬레나가 고개를 돌린다. 일레인은 달려와 헬레나에게 풀썩 안긴다.

헬레나 “조심해, 일레인!”

일레인은 앉아 있는 헬레나에게 안겨 헬레나의 귀에 속삭거린다.

일레인 “엄마, 엄마. 이번 소원으로서는 파란색 전동 자동차를 빌거야!”

S# 4 일레인의 거실 (생일파티 장식), INT

일레인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다. 일레인의 뒤에는 헬레나가 서 있고, 옆으로는 일레인의 친구들이 앉아 있다. 생일 꼬깔모자를 쓴 일레인의 얼굴에는 특유의 개구장이스러운 웃음이 만연하다. 부엌 쪽에서 클레어가 뽀뽀뽀한 글씨로 “Happy Birthday 일레인”이라고 적힌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등장한다.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케이크를 기다리며 아이들 모두 일레인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케이크에는 6개의 초가 불빛을 뽐고 있다. 클레어가 일레인 앞에 케이크를 놓자 축하 노래가 끝나고 모두 박수를 친다. 헬레나가 클레어에게 기대는 모습이 일레인의 뒤로 보인다. 일레인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 준비를 하고 있다.

{

INSERT (일레인의 생일 소원과 크리스마스 선물)

5살 생일, 일레인이 소원을 빈다. 헬레나가 소원이 무엇이었는 지 물어보자 웃으며 헬레나의 귀에 속삭거리는 일레인. 바로 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의 집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4살 생일도 마찬가지로이다. 케이크의 촛불을 불기 전에 소원으로 무엇을 빌 것인지 물어보는 클레어의 귀에 소원을 속삭거린다. 4살 생일의 케이크의 촛불을 불면서 소원을 빈다. 똑같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블록놀이 세트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

일레인의 머리 뒤로는 멋진 전동 자동차가 떠오른다. 드디어 소원을 빌려고 일레인이 숨을 들이 마시고 눈을 뜬 순간 그레고리(그렉)가 옆에서 촛불을 불어버린다. 눈을 뜨고 이미 연기가 폴폴 나는 촛불을 보자, 행복하던 일레인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눈에서 닭 똥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일레인은 울음을 참으려는 듯 숨을 훅훅 들이마신다. 점점 일그러지는 일레인의 표정이 보이자 헬레나가 다가와 일레인을 안아 들고 달랜다.

일레인 “그렉이 내 소원을 뺏어갔어!!”

헬레나 “아휴.. 그랬어, 울지 마, 울지 마. 울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아”

클레어 “초에 불을 다시 붙여 줄게, 그러면 소원을 빌 수 있어”

클레어는 서랍에서 성냥을 가져온다. 그 새 울음을 그친 일레인은 헬레나의 품에 안겨 색색 거리고 있다. 클레어는 케익에 촛불을 밝혀서 일레인의 앞에 들고 온다. 일레인은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이내 후~ 하고 촛불을 끈다. 헬레나는 일레인이 자리에 앉도록 바닥에 내려놓는다. 일레인은 의자에 앉아 그렉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일레인 “두고 봐. 그렉...”

{

INSERT (그렉에게 복수하는 일레인)

유치원으로 보이는 듯한 장소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크리스마스 이후로 보인다. 간식 시간인 듯 아이들이 레모네이드와 사과 조각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일레인은 기회를 노리는 듯 그렉을 응시한다. 옆자리에 앉은 그렉이 뒤로 돌아 친구와 이야기 하려고 뒤를 돈다. 그 순간 일레인은 자기가 마시던 레모네이드를 그렉의 바지에 부어버리고는 재빠르게 손을 원위치 시킨다. 차가운 게 닿자 그렉은 놀라 앞을 돌아보고, 축축한 바지섬을 보고는 놀라서 운다. 그렉이 울면서 일어나자 뒤에 앉아 그렉과 이야기하던 친구가 외친다.

친구 “선생님!!! 그렉이 오줌을 싸어요!!!”

그렉 “아니아!!!!!!!!”

}

일레인은 다시 웃으며 초콜렛 케이크를 입가에 문혀가며 먹는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사이로 헬레나와 클레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클레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는 하지 말지...”

헬레나 “미안... 버릇처럼 나왔어...”

S# 5 일레인의 거실 (크리스마스 분위기), INT

곳곳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장식이 매달려 있는 트리와 벽난로에는 양말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인다. 커튼에도 전구와 초록색과 붉은색 장식 끈이 매달려 있다. 트리 밑에는 자그마한 선물들이 소담히 쌓여 있다. 열린 커튼 사이로는 소복히 쌓여 있는 눈이 보인다. 계단을 내려오는 듯이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일레인이 거실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일레인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트리 밑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트리 밑에 있는 선물더미에는 전동 자동차라고 볼만큼 커다란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일레인은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작은 선물들을 들고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다. 이내 선물들을 내려놓고 부엌 쪽으로 달려간다.

S# 6 일레인의 집 안, INT

일레인이 구석구석 부엌을 살살이 훑는 장면이 보인다. 하부 싱크대도 모두 열어보고, 의자를 들고 와서 킁킁대며 상부 싱크대 장도 모두 열어본다. 냉장고도 열어봤다가 다시 닫는다.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거실 화장실로 달려간다. 부엌처럼 살살이 훑는 일레인. 화장실에도 자동차가 없는 것을 보자 화장실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달려간다. 계단을 달려 2층으로 올라가는 일레인. 계단만 보이는데도, 일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린다. 잠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멈췄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일레인. 코트, 장갑, 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것이 보인다.

S# 7 일레인의 마당, OUT

현관문이 보인다. 현관에서 대문으로 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눈이 잔뜩 쌓여 있다. 일레인이 현관 문을 열고 나온다. 일레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Point of view

쌓여 있는 눈과 대문이 보인다. 눈을 치워 만든 길 왼쪽으로 자동차가 보인다. 일레인은 자동차 쪽으로 걸어간다. 쌓인 눈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시야가 뒤뚱거린다. 차에 도착하자 장갑을 낀 손으로 차 창에 쌓인 눈을 이리저리 치운다. 조수석 창으로 차 안을 들여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일레인의 시야가 뒤뚱거린다.

Point of view off

일레인이 뒤뚱거리다 눈 발에 엉덩방아를 찧는 뒷모습이 보인다. 이내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엉덩이를 탈탈 터는 일레인. 몸에 묻은 눈도 살뜰히 털어낸다. 일레인은 조심히 뒤를 돌아 마당을 크게 둘러본다. 세상이 눈 발에 묻혀 있지만 전동 자동차처럼 보이는 큰 물체는 없다. 조용히 대문으로 다가가는 일레인, 대문을 연다. 대문 밖도 도로는 정비되어 있지만 주변은 여전히 눈에 폭 파묻혀 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일레인. 주변을 둘러보자 큰 상자 같은 것이 눈에 묻혀 있는 것이 보인다.

일레인 “찾았다!”

일레인은 눈더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온 팔로 눈더미를 헤친다. 위에 쌓인 눈을 벗기자 노끈에 묶인 신문 더미와 맨 위에 위치한 신문의 헤드라인이 보인다. “Worst crisis, Bursting lay-off(최악의 위기, 잇따르는 정리해고)”. 일레인이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는 것이 보인다.

일레인 “자동차가 아니네... 자동차가 없어...”

일레인은 차가운 것도 모르고 눈발에 풀썩 주저 앉는다. 빨간 코끝에 눈가도 발개진다.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는 듯하자 일레인은 옷 소매로 속속 닦는다. 하지만 이내 숨을 훑 들이켜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떨어진다. 안 울려고 하지만 눈물이 나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일레인. 이내 엉엉 울음을 터트린다. 고요한 크리스마스 아침, 한적한 동네 길가의 눈발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일레인. 일레인은 울면서 한탄하듯 물먹은 목소리로 엉엉 거리며 외친다.

일레인 “그렉 때문이야. 그렉은 개똥벌레야”